귀에 수신기 꽂은 비밀요원처럼

(시편 29:1~11)

1.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3.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귀에 수신기 꽂은 비밀요원처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귀에 수신기 꽂은 비밀요원처럼'

2012년 4월 11일에 미국 비밀경호국의 소속 경호원과 군 파견요원 20여명이 콜롬비아를 향합니다. 이들은 2012년 4월 14일에 콜롬비아에서 열릴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보다 사흘 앞서 파견된 선발대로, 인구 85만의 해안도시 카르타헤나의 카리브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12명이 스트립쇼를 관람하고 주흥에 겨워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조용히 넘어갔어야만 했던 이 일은 한 방에서 시작된 싸움으로 인해 불거졌습니다. 한 비밀요원이 800달러를 주기로 약속했던 여성에게 30달러만을 주고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복도에 나와서 소리를 치며 울기 시작했고 다른 방에 있던 여성들이 나와서 합세하여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에 현지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경호원 12명 가운데 8명이 해고되고 나머지 4명도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매스컴은 온통 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적이 있었답니다.

중앙정보국 요원출신으로 시사주간지 타임의 정보 분석가인 로버트 베어는 "세계 어디서든 경호원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하는 행위는 그릇된 판단을 보여주는 적신호다. 그것은 현지 스파이가 정보를 캐내도 좋다는 공개초정장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비밀요원이나 비밀경호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최우선되어야 될 수행원칙은 분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밀요원은 참석한 자리가 회의석상이든 카지노이든 파티든 심지어 예배에 참석

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화에 보면 비밀요원들이 귀에 수신기를 꽂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을 들으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주의를 집중해서 경호해야 될 대상이 나타나면 '비둘기가 둥지로 돌아왔다'라는 식으로 암호를 써서 대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을 수행함에 전념하다보면 파티 분위기에 젖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도서관에 잠입했다면 눈앞에 책을 펴놨을지라도 정신은 책에 가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위기에 젖어서는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놓인 분위기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해서 빠져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오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만 이천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마음이 흥분하여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고 경제는 파탄 났던 식민지 상태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은 로마와 짜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굶주리던 대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이제 내 때가 왔다고 여기며 그들을 이끌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사로 칭송을 받으면서 목회를 배우겠다는 많은 목사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위기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무리와 제자들까지 흩으시고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귀에 수신기를 꽂은 비밀요원처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분위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인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에 꽂은 수신기로부터 하늘의 명령을 듣는 비밀요원처럼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일곱 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우렛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유하여 그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이어질 내용과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는데 이 두 구절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보았던 시편 27편과 비슷합니다.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

분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를 우렛소리에 비유하여 일곱 번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우렛소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내용과 오늘 내용을 합쳐보면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우렛소리 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은 힘의 경쟁 장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주목합니다. 이렇게 힘의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하는데 영광은 곧 1등에게 조명이 비춰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강하신 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힘센 자를 가늠하는 경쟁에서 1등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각 사람은 이제 그 이름을 마음에서 1등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붙잡았으면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갖고 싶어 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그 존재를 가질 수 없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서 1등으로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도록 추구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구부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굴복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면 돈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므로 그 이름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시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태양으로 모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은 나의 우렛소리가 됩니다. 우레는 정겹거나 부드럽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악가나 악기들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경직시키고 두렵게 하고 정신을 빼앗는 소리입니다.
5~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라고 하는데 벼락이 떨어지면서 나무가 꺾어지는 모습을 상상한 것입니다.
또한 8~9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라고 합니다. 산과들을 진동시키시는 소리에 암사슴이 놀라서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바람에 뱃속의 새끼

를 예정보다 일찍 낳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낙태는 '새끼를 일찍 낳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렛소리로 표현해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계시록 4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29절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음성이 우렛소리로 비유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노래하는 다윗의 마음에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갖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있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는 가지가지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나라문제, 경제문제, 국민들의 생활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등의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소리만이 마음에 크게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렛소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 번개와 천둥이 치면 다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천둥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오직 그 소리 외에는 들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주의하고 있다가도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모든 관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태양이신 것이 분명하여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호와의 소리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꿰뚫고 압도하여 내게 들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음성이 우렛소리로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호와가 나의 태양이 아니고 여호와로 마음을 채운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자 산헤드린공의회에서 이들을 잡아들입니다. 시골구석에서 나타난 어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 자신들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벌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말 것을 요구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산헤드린공의회는 유대사회의 최고의결기관이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로마에 죽음을 의탁할 수 있는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의 손에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겁박을 받고서 저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산헤드린공의회의 경고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렛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산헤드린공의회 소리는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시기에 나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귀에 꽂은 수신기에서 들려오는 명령을 따르는 비밀요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직장생활이라는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승진과 월급을 최고의 가치라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의 요원들이 콜롬비아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기쁨을 찾으려다가 경호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승진이 최고라는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태양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면 운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근거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되 점점 더 크게 들려서 우렛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통화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웃고 떠들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사람들은 도대체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사시는지 알 수 없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도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최고다!'라는 소리가 아우성처럼 들려오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태양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렛소리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시면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소리들은 단지 잡음이나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시고 기쁨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돈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건강에 무릎 꿇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으면 아

무것도 아닌 줄로 알았고, 자녀가 형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과 기쁨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렛소리로 들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오! 나의 태양이시고 오! 나의 우렛소리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일찍 죽는 것은 저주다!'라는 가치관의 소리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런 소리가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울려 퍼집니다. 돈이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얄팍한 내 주머니를 보면 겁이 나고 두려워집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픈 내 몸이 처량하고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음성들에 지배되었던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태양으로 여기는 존재의 소리만 듣습니다. 돈이 태양이었고 자녀가 태양이었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에 관한 소리만 들리기에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말을 하면서도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하면서 돈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시라'는 의미의 말을 하고서 '여호와의 음성이 우렛소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가치를 태양으로 여기는 마음이 죽었음을 끊임없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돈 건강 자녀의 형통 등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태양이 되는 순간을 죽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것 하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태양이 되십니다. 그럴 때에 태양이신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리고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세상적 태양들에 관련된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태양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그 음성을 우렛소리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귀에 수신기를 꽂은 첩보요원들처럼 이 세상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살아가는 007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이 나의 태양되심을 느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태양되

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세상의 모든 음성을 이기는 우렛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귀에 수신기를 꽂은 비밀요원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